

《內經》의 月令(四時)-신체 부위 배속에 대한 易學的 해석

慶熙大學校 韓醫科大學 原典學教室 講師 丁彰炫

I. 序論	74
II. 內經과 周易의 陰陽升降理論	75
1. 陰陽理論은 內經과 周易의 共通分母이다.	75
2. 陰陽의 升降과 進退消長은 萬物이 運動하고 變化하는 原動力이다.	76
III. 陰陽升降理論의 應用	78
1. 《靈樞陰陽繫日月》의 經絡 配屬과 陰陽의 進退消長	78
2. 《素問診要經終論》의 藏府 配屬과 陰陽升降.	79
3. 《金匱真言論》의 身體部位 配屬과 陰陽升降	81
IV. 十二辟卦說의 應用	81
1. 十二辟卦說	81
2. 《素問脈解》과 十二辟卦說	82
V. 八卦方位說의 응용	85
1. 八卦方位說	85
2. 九鍼論과 八卦方位說	88
VI. 結論	89
參考文獻	89

《內經》의 月令(四時)-신체 부위 배속에 대한 易學的 해석

慶熙大學校 韓醫科大學 原典學教室 講師 丁彰炫

ABSTRACT

An analysis of systemizing months, seasons, and part of body in “The Yellow Emperor’s Internal Classics” with the theory of yōk(易).

There are many chapters in “The Yellow Emperor’s Internal Classics(黃帝內經)” regarding systemizing months, seasons, meridians, the internal organs(藏府), and parts of body. However it is very confusing because in every chapter, they have different standards. In “Maek’ae(脈解)” of “Plain Questions(素問)”, months are related to three Ŭm and three Yang(三陰三陽). In “Kuch’imnon(九鍼論)” of “Miraculous Pivot(靈樞)”, parts of body are related to seasons and days. In “Ŭmyanggyeirwol(陰陽繫日月)” of “Miraculous Pivot(靈樞)”, 12 meridians are related to the Heavenly Streams & Earthly Branches(干支). In “Chinyogyōngjiongnon(診要經終論)” of “Plain Questions(素問)”, the internal organs(藏府) and the head are related to months. In “Kūmgwejinōllon(金匱眞言論)” of “Plain Questions(素問)”, parts of body are related to four seasons.

Following statements can be concluded when analyzed with the theory of yōk(易).

1. Both in “The Yellow Emperor’s Internal Classics(黃帝內經)” and “Chuyōk(주역)”, Ŭm and Yang are thought as the basis of everything and every change that occur in this universe is by the fluctuation of Yin and Yang. This rule is also applied to our body.

2. “Maek’ae(脈解)” of “Plain Questions(素問)” is related to the theory of twelve principal divinatory symbols(十二辟卦說) and “Kuch’imnon(九鍼論)” of “Miraculous Pivot(靈樞)” is closely related to the theory of eight divinatory symbols-direction

I. 序論

《內經》에는 月令이나 四時에 經絡, 藏府, 身體部位 등을 배속한 것이 여러 편에 보이는데, 그

배속 방법이나 그 내용이 각기 달라 혼돈을 일으키기 쉽다. 《素問脈解》에서는 月令과 三陰三陽을 배속하였고, 《靈樞九鍼論》에서는 신체부위에 절기 및 日辰을 배속하였으며, 《靈樞陰陽繫日

月》에서는 干支와 十二經脈을 배합하였고, 《素問診要經終論》에서는 月令과 藏府 및 頭部를 배합하였으며, 《素問金匱真言論》에서는 四時와 身體部位를 배합하였다.

필자는 이러한 내용들이 모두 각기 다른 관점에서 인체내 氣의 升降을 바라본 것이며, 이 역시 陰陽論의 思考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陰陽의 進退消長에 의한 氣의 升降과 밀접한 연관이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실제로 《素問脈解》와 《靈樞九鍼論》의 내용은 易學의 十二辟卦說이나 八卦方位說과 그 맥락이 상통하는 것으로 보인다.

陰陽思想은 《黃帝內經》 전편에 걸쳐 깃들여 있는 이론 체계로 한의학의 이론적 근거가 되는 것이다. 《內經》을 아무리 뒤져보아도 陰陽論이 아닌 것이 없다. 동양학문의 한 중심축이라고 할 수 있는 易學에 있어서도 陰陽論의 위치는 절대적이다. 陰陽이 없다면 易學이라는 학문 자체가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다. 《內經》과 《周易》이 이처럼 陰陽論을 모두 각자 성립기반으로 삼고 있는 이상, 그 내용에 있어서 비록 표현은 다르지만 같은 맥락으로 받아들이고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 매우 많을 것임은 자명한 이치이다.

이에 필자는 앞에서 언급한 문제들을 역학적 이론을 응용하여 분석해 보고자 한다.

II. 內經과 周易의 陰陽升降理論

1. 陰陽理論은 內經과 周易의 共通分母이다.

《內經》과 《周易》 모두 음양이 만물을 생성하고 변화시키는 근본이라고 인식하였다. 일찌기 《內經》에서는 “夫四時陰陽者, 萬物之根本也”《

素問四氣調神大論》라고 하여 사시의 음양변화가 만물의 발생, 성장, 소멸의 근본원인이 된다고 하였고, “陰陽者, 天地之道也, 萬物之綱紀, 變化之父母.”라고 하여 음양이 천지자연이 운동변화하는 근본 규율이라고 하였다. 음양은 만물이 생성, 변화하는 근원이기도 하고, 동시에 그 근본 규율이기도 한 것이다. 《內經》은 天地自然의 운동, 변화 뿐만 아니라, 인간의 생명활동도 陰陽運動을 근본으로 한다고 인식하였다. 《素問寶命全形論》에서 “사람이 태어나서 형체를 등에 陰陽을 벗어나지 않는다¹⁾.”라고 한 것이나, 《素問生氣通天論》에서 “무릇 예로부터 하늘의 이치에 통한 사람은 생명의 뿌리를 陰陽에 근본하였다²⁾.”라고 한 것은 곧 사람의 생명활동이 陰陽을 벗어날 수 없음을 말한 것이다. 또 《素問四氣調神大論》에서는 “무릇 四時와 陰陽은 만물의 근본이다. 그래서 성인께서는 봄과 여름에는 陽을 기르시고, 가을과 겨울에는 陰을 기르셔서 그 근본을 따르셨으니, …… 그러므로 陰陽과 四時は 만물의 처음이자 끝이며 만물이 죽고 사는 근본이 됩니다. 이를 거스르면 재해가 생기고 이를 따르면 혹독하고 사나운 병이 일어나지 않으니, 이를 일러 道를 얻었다고 합니다³⁾.”라고 하여, 四時陰陽의 운동이 만물의 근본이며 死生의 근본이므로, 정상적인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四時의 陰陽變化에 순응해야 한다고 했다.

《素問陰陽應象大論》에서 “陰陽은 하늘과 땅의 도리오 만물의 버리며 변화의 부모이며 낳고 죽이는 근본과 시작이며 神明의 곳집이니, 병을 치료함에 있어서도 반드시 근본에서 구해야 합니

1) 人生有形, 不離陰陽

2) 夫自古通天者, 生之本, 本於陰陽.

3) 夫四時陰陽者, 萬物之根本也. 所以聖人春夏養陽, 秋冬養陰, 以從其根, …… 故陰陽四時者, 萬物之終始也, 死生之本也. 逆之則災害生, 從之則苛疾不起, 是謂得道.

다4)라고 한 것은 內經의 자연과 인간에 공통으로 작용하는 음양에 대한 개념을 한마디로 집약한 것이다.

《周易》은 64卦 자체가 陰爻와 陽爻로 이루어졌다는 사실만으로도 陰陽論을 사상의 뿌리로 삼고 있음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周易》의 음양사상은 주로 《易傳》에 보이는데, 卦爻를 해석하는데 있어서 陰陽論을 응용하였다. 乾卦 初爻⁵⁾ 象傳에 “潛龍勿用은 陽在下也 | 오”, 文言傳에 “潛龍勿用, 陽氣潛藏”이라 한 것이나, 坤卦 初爻⁶⁾ 象傳에 “履霜堅氷은 陰始凝也니……” 文言에 “陰疑於陽하면 必戰하니니 爲其嫌於無陽也 | 라”라고 한 것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또 “天地 | 網緼에 萬物이 化醇하고 男女 | 構精에 萬物이 化生하니라”《繫辭下 5장》라고 하여, 음양의 상합에 의해 만물이 생성됨을 말하였다. 즉 천은 양이요 땅은 음이니 하늘의 양기과 땅의 음기가 서로 작용하여 만물을 생성하며, 남자는 양이요 여자는 음이니 남자의 양기와 여자의 음기가 결합하여 새로운 생명체를 낳는다는 것이다. 이러한 《周易》의 음양사상을 한마디로 정의한 것이 바로 “一陰一陽之謂道”《繫辭上 5장》이다. 즉 한번 음하고 한번 양하여 음양이 상호 작용하는 과정 속에서 만물이 생성, 변화, 발전, 소멸해가는 것임을 말한 것이다.

이와 같이 《內經》과 《周易》은 그 뿌리를 음양론에 두고 있다. 둘 다 만물은 모두 음과 양의 상합으로 생성되고, 음과 양의 상호작용에 의해 운동, 변화한다고 생각하였다.

2. 陰陽의 升降과 進退消長은 萬物이 運動하고 變化하는 原動力이다.

《內經》에서는 陰陽의 升降을 매우 중시하여

- 4) 陰陽者, 天地之道也, 萬物之綱紀, 變化之父母, 生殺之本始, 神明之府也, 治病必求於本.
- 5) 初九, 潛龍勿用
- 6) 初六, 履霜堅氷至

“故上下相召, 升降相因, 而變作矣.”《素問六微旨大論》, 上下相臨, 陰陽相錯, 而變由生.”《素問天元紀大論》이라고 하였는데, 上下는 天地를 말하니, 天地의 陰氣와 陽氣가 서로 작용함으로 인해 변화가 발생한다고 보았다. 또 《內經》에서는 “升已而降하니 降者謂天이오 降已而升하니 升者謂地니라. 天氣下降하야 氣流于地하고 地氣上升하야 氣騰于天하니 故高下相召하고 升降相因하야 而變作矣니라.”《素問六微旨大論》라고 하여, 天氣와 地氣의 陰陽升降運動이 끊임없이 반복된다고 보았다. 즉 天氣의 하강하는 기운에 의지해 지기가 상승하며 地氣의 상승하는 기운에 의해 천기가 하강한다고 본 것이니, “升降相因”은 이를 두고 한 말이다. 이러한 끊임없는 음양의 승강운동에 의해 크게는 일년 四時의 계절변화가 발생하게 되는데, 《素問五運行大論》에서 “陰陽之升降, 寒暑彰其兆”라고 하여, 四時에 따른 寒熱 변화가 陰陽의 승강에 의한 것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도리는 인체에도 마찬가지로 인체가 생명활동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음양승강운동이 있어야 하며, 승강운동이 없다면 생명이 유지될 수 없다. 《素問六微旨大論》에서 “出入廢하면 則神機化滅하고 升降息하면 則氣立孤危하니 故非出入이면 則無以生長壯老已오 非升降이면 則無以生長收藏이니라.”라고 한 것은 바로 이를 말한 것이다. 인체 12經脈의 陰經과 陽經의 순행만 보아도 陽經은 손에서 머리로 머리에서 다리고 가므로 천기가 하강하는 상이며, 陰經은 다리에서 흉복부로 흉복부에서 손으로 가므로 지기가 상승하는 상이다. 이외에도 《內經》의 陰陽升降理論은 한의학의 각 방면에서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⁷⁾.

《周易》에서 陰과 陽은 乾과 坤으로 대표되는

- 7) 心腎水火相濟說, 약물의 升降浮沈理論, 四時脈 등이 그 예이며, 李東垣의 脾胃論 또한 여기에서 비롯된 것이다.

데, 乾坤의 상호작용에 의해 八卦, 64卦, 만물이 생겨나고, 乾坤의 작용에 의해 만물이 운동변화해 간다. 《繫辭下 6장》에서 “子曰乾坤은 其易之門邪. 且 乾은 陽物也 | 오 坤은 陰物也 | 니 陰陽이 合德 해야 而剛柔 | 有體라 以體天地之撰하며 …… (乾과 坤은 그 易의 문이로다. 乾은 陽을 대표하는 물건이고 坤은 陰을 대표하는 물건이니 陰과 陽이 그 덕을 합하여 強과 柔가 형체를 갈게 되고 이로써 하늘과 땅의 일을 체현하며 ……)”라고 하였는데, 하늘과 땅의 일이라 함은 하늘과 땅이 만물을 생성하는 것을 말한다. 나아가 《周易》에서는 乾坤이 만물을 생성할 수 있는 원인을 “是故로 闔戶를 謂之坤이오 闔戶를 謂之乾이오 一闔一關을 謂之變이오 往來不窮을 謂之通이오 …… 變通이 莫大乎四時니라(문을 닫는 것을 坤이라 하고 문을 여는 것을 乾이라 하며, 한번 닫고 한번 열리는 것을 變이라 하고 가고 옴이 다하지 않는 것을 통이라 한다. …… 變通이 사시보다 큰 것이 없다.)” 《周易繫辭上 11章》라고 하여, 건과 곤의 한번 闔하고 한번 關하는 것에 의해 만물이 생성하고 변화하며, 그 중 四時가 가장 대표적인 것이라고 하였다. 乾은 天이오, 坤은 地니, 乾坤의 “一闔一關”은 天地의 升降을 말하는 것이다. 易學에서는 이를 乾卦와 坤卦의 陽爻와 陰爻의 盛강에 빗대어 해석하였는데, 太極陰陽升降圖, 乾卦와 坤卦의 爻를 일년 12개월에 배속한 乾坤爻辰圖, 十二辟卦를 12개월에 배속한 十二辟卦圖 등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이들은 일년동안 일어나는 모두 천지의 양기와 음기의 盛강을 체현한 것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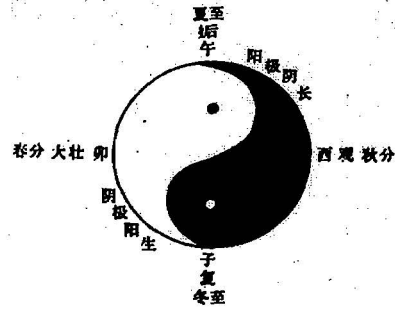


그림 II-1. 태극음양승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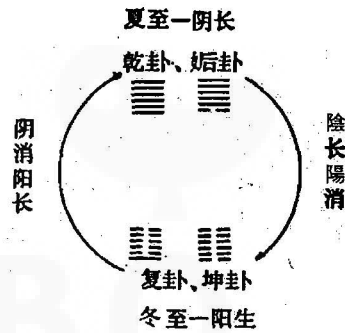


그림 II-2. 음양소장도(12벽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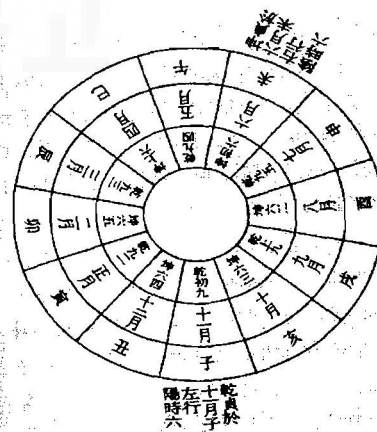


그림 II-3. 건곤효진도

이러한 氣의 升降運動은 모두가 陰陽의 進退消

長에 의한 것이다. 陽은 動을 主하고 陰은 靜을 주 하며 陽은 升을 主하고 陰은 降을 主하니 陽이 나 아가고 陰이 물러나는 시기에는 氣가 升하고 陰이 나아가고 陽이 물러나는 때는 氣가 降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처럼 氣의 승강은 음양의 진퇴소장과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다. 따라서 음양의 進退消長 역시 《內經》이나 《周易》에서 매우 중시 되었다.

《內經》에서는 “夫四時陰陽者，萬物之根本也” 라고 하여, 사시의 음양변화가 만물의 근본이 된다고 하였다. 또 일년 사계절의 변화 자체가 음양의 진퇴소장에 의한 것이라고 하여, 四時를 음양의 성쇠를 기준으로 陽中之陽, 陽中之陰, 陰中之陽, 陰中之陰 등으로 구분하였다. 《素問至真要大論》에서 “陽之動은 始於溫하고 盛於暑하며, 陰之動은 始於清하고 盛於寒하야 春夏秋冬 | 各差其分하니, 故로 大要에 曰彼春之暖 | 爲夏之暑하고 彼秋之忿 | 爲冬之怒이라 하니이다.”라고 한 것은 이같은 음양의 진퇴소장에 따라 나타나는 기후 변화를 말한 것이다. 이런 원칙은 하루의 음양성쇠를 나누는데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⁸⁾.

(繫辭傳)에서 “一陰一陽之謂道”, “剛柔相推而生變化”, “剛柔 | 相推하니 變在其中矣”라고 하였으니, 相推는 陰陽二氣의 互變은 물론이고 上下往來, 進退消長을 포괄하는 것이다⁹⁾. 一陰一陽은 낮과 밤이 교대하고, 춘하와 추동이 번갈아 들어 하루를 이루고 일년을 이루는 것이니, 곧 왼발과 오른발을 차례로 내딛음에 따라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周易繫辭下 5章》에서 “日往則月來하고 月往則日來하야 日月이 相推而明生焉하며 寒往則暑來하고 暑往則寒來하야 寒暑 | 相推而歲成焉하니……”이라고 한 것이 바로 그것이다. 나아가 《易傳》에서는 “日中則昃하며 月盈則食하니 天地盈虛도 與時消息이온 而況於人乎 | 且 況於鬼神乎아”(豐卦彖傳)라고 하였으니, “天地盈虛, 與時消息”은 사물의 盈虛消長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끊임없이 반복되는 과정임을 말한 것이며, “況於人乎”는 인간도 역시 이러한 원칙에 예외될 수 없음을 말한 것이다. “反復其道, 七日來復”(復卦彖傳), “無往不復”(泰卦九三爻 象傳) 또한 음양 성쇠가 끊임없이 반복되는 것을 말한 것이다.

이처럼 음양의 승강과 진퇴소장운동은 음양운동의 기본 형식으로 사시의 계절 변화와 만물을 생성, 변화, 발전시키는 원동력이 되며, 만물은 모두 이 법칙에서 벗어날 수 없다.

III. 陰陽升降理論의 應用

1. 《靈樞陰陽繫日月》의 經絡 配屬과 陰陽의 進退消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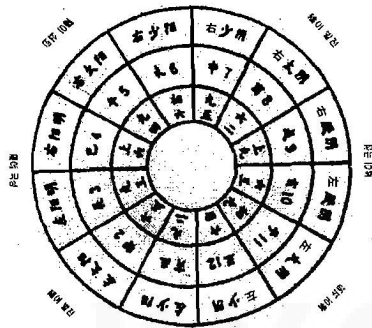
《靈樞陰陽繫日月》에서는 十二經脈을 天干과 地支에 배합하였는데, 좌우의 足三陰經과 足三陽經을 地支에 배합하고, 手厥陰經을 제외한 左右의 手經을 天干에 배속하였다. 이에 대해 “腰以上爲天이오 腰以下爲地니 故로 天爲陽이오 地爲陰이니이다. 故로 足之十二經脈은 以應十二月하니 月生於水라 故로 在下者爲陰이오, 手之十指는 以應十日하니 日主火라 故로 在上者爲陽이니이다.”라고 하였다. 즉 手는 인체 상부에 있어 天에 應하므로 陽에 되고, 足은 인체 하부에 있어 地에 應하므로 陰이 된다고 하였다. 이러한 원칙에 의해 足部の 經脈을 12地支에 배속하고, 手部的 經脈을

8) 《소문금궤진언론》에서 “平旦至日中, 天之陽, 陽中之陽也, 日中至黃昏, 天之陽, 陽中之陰也, 合夜至雞鳴, 天之陰, 陰中之陰也, 雞鳴至平旦, 天之陰, 陰中之陽也.”라고 한 것이다. 《소문生氣通天論》에서 “故陽氣者, 一日而主外, 平旦人氣生, 日中而陽氣隆; 日西而陽氣已虛, 氣門乃閉. 是故暮而收拒.”라고 한 것 등이 그 예이다.

9) 朱伯崑, 《易學哲學史》上冊. 北京大學出版社, 1989. 79쪽

10天干에 배속한 것이다.

足部の 經脈과 地支의 배속을 살펴보면, 正月에 左足少陽을, 2월(卯)에 左足太陽을, 3월(辰)에 左足陽明을, 4월(巳)에 右足陽明을, 5월(午)에 右足太陽을, 6월(未)에 右足少陽을 배속하고, 7월(申)에 右足少陰을, 8월(酉)에 右足太陰을, 9월(戌)에 右足厥陰을, 10월(亥)에 左足厥陰을, 11월(子)에 左足太陰을, 12월(丑)에 左足少陰을 배속하였다.



이에 대해 張介賓은 다음과 같이 해석하였다.

此言十二支爲陰, 足亦爲陰, 故足經以應十二月也. 然一歲之中, 又以上半年爲陽, 故合於足之六陽, 下半年爲陰, 故合於足之六陰. 人之兩足, 亦有陰陽之分, 則左爲陽, 右爲陰, 上下半年之陰陽而合於人之兩足, 則正二三, 爲陽中之陽, 陽之進也, 故正月謂之生陽, 陽先於左而後於右, 故正月主左足之少陽, 二月主左足之太陽, 三月主左足之陽明, 四五六爲陽中之陰, 陽漸退, 陰漸生也, 故四月主右足之陽明, 五月主右足之太陽, 六月主右足之少陽, 然則一歲之陽, 會於上半年之辰巳兩月, 是爲兩陽合於前, 故曰陽明, 陽明者, 言陽盛之極也. 七八九, 爲陰中之陰, 陰之進也, 故七月謂之生陰, 陰先於右而後於左, 故七月主右足之少陰, 八月主右足之太陰, 九月主右足之厥陰, 十月十一十二月, 爲陰中之陽,

陰漸退陽漸生也, 故十月主左足之厥陰, 十一月主左足之太陰, 十二月主左足之少陰, 然則一歲之陰, 會於下半年之戌亥兩月, 是爲陽陰交盡, 故曰厥陰, 厥者盡也, 陰極於是也. 此總計一歲陰陽之盛衰, 故正與六合, 二與五合, 三與四合, 而陽明合於前也, 七與十二合, 八與十一合, 九與十合, 而厥陰合於後也, 非如六氣厥陰主風木, 陽明主燥金者之謂.”

이를 요약하면, 일년 중에 前半年은 陽이 되고, 後半年은 陰이 된다. 따라서 足部の 陽經은 모두 前半年에 해당되고, 陰經은 모두 後半年에 해당된다. 좌우를 음양으로 구분하면 왼쪽이 양이고 오른쪽이 음이므로 양은 왼쪽이 우선이고, 음은 오른쪽이 우선이다. 이런 원칙에 의해 정월, 2월, 3월은 左足陽經이 주관하는 때로 양기가 나아가는 단계이고, 4월, 5월, 6월은 右足陽經이 주관하는 때로 양기가 쇠퇴하는 단계이다. 또 7월, 8월, 9월은 右足陰經이 주관하는 때로 陰氣가 始生하여 발전하는 단계이며, 10월, 11월, 12월은 左足陰經이 주관하는 때로 陰氣가 점차 쇠퇴하는 단계이다.

또 張介賓은 少陽과 陽明 두 陽이 합쳐진 것이 陽明으로 陽明은 양기가 극성한 것인데, 위의 내용으로 볼 때 일년 중 3월, 4월에 陽氣가 가장 盛하므로 이 때를 양명에 배속한 것이라고 보았다. 또 厥陰은 兩陰이 交盡한 것으로 陰氣가 가장 왕성한 것인데, 일년 중 9월, 10월에 음기가 가장 盛하므로 이때를 厥陰에 배속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張介賓은 여기서 陽明이나 厥陰이 六氣로서 三陰三陽이 아님을 분명히 했다. 즉 여기서의 三陰三陽은 氣의 盛衰를 가지고 말할 것이라고 본 것이다.

이상의 내용 역시 陰陽의 進退消長을 그 이론적 바탕으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素問診要經終論》의 藏府 配屬과 陰陽升降.

正月二月, 天氣始方, 地氣始發, 人氣在肝. 三月四月, 天氣正方, 地氣定發, 人氣在脾. 五月六月, 天氣盛, 地氣高, 人氣在頭. 七月八月, 陰氣始殺, 人氣在肺. 九月十月, 陰氣始冰, 地氣始閉, 人氣在心. 十一月十二月, 冰復, 地氣合, 人氣在腎.

一月, 二月은 天氣가 비로소 펴고 地氣가 비로소 일어나므로 人氣가 肝에 있으며, 三月, 四月은 天氣가 온전하게 펼쳐지고 地氣가 안정되게 벌리므로 人氣가 脾에 있습니다. 五月, 六月은 天氣가 隆盛하고 地氣가 높아져 人氣가 머리에 있습니다. 七月, 八月은 陰氣가 비로소 天氣를 덜므로 人氣가 肺에 있으며, 九月, 十月은 陰氣가 비로소 얼리고 地氣가 비로소 닫히므로 人氣가 心에 있습니다. 十一月, 十二月은 얼음이 덮고 地氣가 닫혀 人氣가 腎에 있습니다.

一, 二月은 겨울동안 거두어 잠장되어 있던 天氣와 地氣가 陽氣의 升發작용에 의하여 天地之間으로 펼쳐지기 시작하는 때이므로 '天氣가 비로소 펴고 地氣가 비로소 일어난다' 하였으며, 三, 四月을 '온전하게 펼쳐지고 안정되게 벌린다'한 것은, 一, 二月에서부터 펼쳐지기 시작한 氣가 치우침이 없는 안정된 상태에 이르렀다는 뜻이다. 五, 六月은 天地의 氣의 發揚이 최고조에 이르러 극성한 때이므로 '융성하고 높다'고 하였다. 七, 八月은 五, 六月까지 펼쳤던 氣運이 비로소 거두어지기 시작할 때로 陽氣대신 陰氣가 用事를 시작하니 '융성한 天地의 氣運을 비로소 減한다'하였으며, 九, 十月은 氣運을 거두는 시초이므로 '비로소 닫힌다'하였다. 그리고 十一, 十二月은 氣運이 완전히 거두어지므로 '닫힌다'하였다¹⁰⁾.

이는 春夏에 양기가 상승하고 秋冬에 하강하는 陰陽升降運動을 인체에 그대로 투영한 것이다. 다

만 左升右降의 시각을 前升後降의 관점으로 바꾼 것뿐이다. 노자는 "萬物負陰而抱陽¹¹⁾"이라 하였고, 《內經》에서는 "背爲陽, 腹爲陰"《素問金匱眞言論》이라 하였으니, 胸腹은 음부위로서 陽氣를 안고 있고, 背部는 양부위로 陰氣를 지고 있다. 따라서 인체의 기는 앞쪽으로 陰中의 陽氣가 상승하고 뒤쪽으로는 陰에 의해 陽氣가 下降하는 것이다. 인체의 五臟은 背部에 肺와 心이 위치하고 복부에 肝, 脾, 腎이 위치하니, 여기서 五臟은 단순히 上下의 위치적인 개념을 취한 것일 뿐 별다른 의미는 없다. 즉 기가 春夏에 상승하고 秋冬에 하강한다고 볼 때, 각각의 시기에 기가 위치하는 자리를 五臟을 빌어 표현한 말일 뿐이다.

이에 대해 朴贊國은 "본 章은 天地自然의 변화에 逆從하는 어느 정도 獨立性을 가진 神機之物의 입장에서 人氣의 變化를 논한 것이 아니라, 植物처럼 천지자연의 변화에 단지 順應하기만 하는 氣立之物로 보고 人氣의 昇降을 논한 것이다. 즉, 植物이 天地의 氣運을 받아들여 씨앗을 만들어 가는 것처럼, 人體가 天地로부터 氣를 받아들여 精을 생성하는 것을 단계적으로 설명하고 있으니, 人體 스스로 五行의 법칙에 따라 삶을 영위하는 독립적인 代謝가 아닌, 天地의 陰陽升降運動에 종속되어 이루어지는 植物的인 代謝로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여기서 藏과 頭는 생명활동을 영위하는 主體者의 입장이 아니라, 단지 天氣와 地氣를 담은 그릇이란 의미가 강하다¹²⁾."라고 하였는데, 이 또한 이장의 내용이 자연의 陰陽升降運動을 그대로 인체에 반영한 것이며, 여기서의 五臟이나 머리 등이 기능적인 관점에서라기 보다는 위치적인 관점에서 배속된 것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

10) 朴贊國, 현토국역 황제내경소문주석, 경희대학교 출판국, 1998, 240쪽

11) 張基樞李錫浩 譯, 《老子·莊子》, 三省出版社, 1987, 124쪽

12) 박찬국, 앞의 책, 240쪽

3. 〈金匱真言論〉의 身體部位 配屬과 陰陽升降

東風生於春, 病在肝, 俞在頸項, 南風生於夏, 病在心, 俞在胸脇, 西風生於秋, 病在肺, 俞在肩背, 北風生於冬, 病在腎, 俞在腰股, 中央爲土, 病在脾, 俞在脊.

東風은 봄에 생겨서 病이 肝에 있으니 俞穴은 목과 뒷덜미에 있고, 南風은 여름에 생겨서 病이 心에 있으니 수혈은 가슴과 옆구리에 있고, 西風은 가을에 생겨서 病이 肺에 있으니 수혈은 어깨와 등에 있고, 北風은 겨울에 생겨서 病이 腎에 있으니 수혈은 허리와 넓적다리에 있고, 중앙은 土가 되어 病이 脾에 있으니 수혈은 등뼈에 있습니다.

《診要經終論》의 신체 배속이 기능적 특징보다는 위치적(공간적) 개념이 중시된 것에 반해, 이편의 경우는 사시에 따른 해당 장부의 기능적 특징을 중심으로 논한 것이다. 肝木의 直升作用, 心火의 布散作用, 肺金의 收斂作用, 腎水의 閉藏作用, 脾土의 調節作用에 초점을 맞춰 身體部位를 四時에 배속한 것이다.

俞는 氣가 모여드는 곳이니, 각 계절에 따라 기가 승강하므로 기가 모이는 위치도 따라서 승강한다고 본 것이다. 肝木의 直升之氣가 작용하면 기가 위로 곧추 뻗어 오르므로 봄에는 기가 頸項에 모이고, 心火의 布散之氣가 작용하면 기가 胸中으로 넓게 퍼지므로 여름에는 기가 흉중에 모이고, 肺金의 收斂之氣가 작용하면 기가 곁에서부터 포장되므로 가을에는 기가 肩背에 모이고, 腎水의 閉藏之氣가 작용하면 기가 침강하므로 겨울에는 기가 허리와 다리에 모인다고 본 것이며, 脾土는 중앙에서 肝木, 心火, 肺金, 腎水의 작용을 조절하는 역할을 하므로 인체에서는 몸의 중심축이 되는 척추에 배속한 것이다.

이는 만물이 천지의 陰氣과 陽氣의 승강운동에 의해 生長收藏을 변화를 거치듯이 인체도 자연의 변화에 순응하여 기의 發生, 布散, 收斂, 沈降의 변화가 발생함을 설명한 것이다.

IV. 十二辟卦說의 應用

1. 十二辟卦說

12辟卦는 일년 12달에 걸친 陰氣와 陽氣의 升降盛衰를 체현한 것으로 12月卦 또는 12消息卦라고 하는데, 漢代 맹희가 제시한 것이다. 이를 간단히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¹³⁾.

子: 11월중¹⁴⁾ 겨울; 冬至次候 - 復卦(☰) 冬至에 陰이 極에 도달, 一陽이 生.

丑: 12월중 겨울; 大寒次候 - 臨卦(☱) 二陽이 生.

寅: 정월중 봄; 雨水次候 - 泰卦(☳) 三陰이 위, 三陽이 아래. 天氣과 地氣가 和合.

卯: 2월중 봄; 春分次候 - 大壯卦(☱) 二陰이 위, 四陽이 아래

辰: 3월중 봄; 穀雨次候 - 夬卦(☱) 一陰이 위, 五陽이 아래

巳: 4월중 여름; 小滿次候 - 乾卦(☰) 6爻 모두 陽

午: 5월중 여름; 夏至次候 - 姤卦(☴) 一陰이 밑에서 始生.

未: 6월중 여름; 大暑次候 - 遯卦(☶) 二陰

13) 朱伯崑, 앞의 책, 116쪽.

주역철학사, 료명춘강학위양위현 지음, 심경호 옮김, 예문서원, 1995. 179~180쪽 참고

14) “中”은 24節氣 중의 中氣를 가리킨 것이다. 24절기는 節氣와 中氣로 구분되는데, 매월의 처음 절기를 節氣라 하고 나중에 오는 절기를 중기라 한다.

이 생.

申: 7월중 가을; 處暑次候- 否卦(䷋) - 三陽이 위, 三陰이 아래. 天地가 不和. 草木이 시듦.

酉: 8월중 가을; 秋分次候 - 觀卦(䷓) - 四陰이 생. 陰氣가 점차 盛해짐.

戌: 9월중 가을; 霜降次候 - 剝卦(䷖) - 위에 一陽. 밑에 五陰. 陰이 極盛

亥: 10월중 겨울; 小雪次候 - 坤卦(䷁) - 6호 모두 陰

十二辟卦는 일년 12월의 中氣를 대표하는 것으로 十二辟卦는 모두 72爻이므로 72候를 상징하기도 한다. 12卦의 음양 두 조트의 변화는 음양의 消長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즉 復卦에서 乾卦까지의 여섯 卦는 一陽이 생겨나 양기가 극성하게 되는 양이 자라고 음이 소멸되는 단계를 표시한 것이고, 姤卦에서 坤卦까지의 여섯 卦는 一陰이 생겨나 음기가 극성하게 되는 음이 자라고 양이 소멸하는 과정을 표시한 것이다. 앞의 여섯 卦는 양이 성장과 음의 소멸을 의미하므로 息卦라 하고, 뒤의 여섯 卦는 음의 번식과 양의 소멸을 의미하므로 消卦라고 한다¹⁵⁾. 일년 12달의 陰陽 進退消長을 陰爻와 陽爻의 승강으로 표현한 것으로 《周易》의 陰陽升降理論을 실제로 응용한 대표적인 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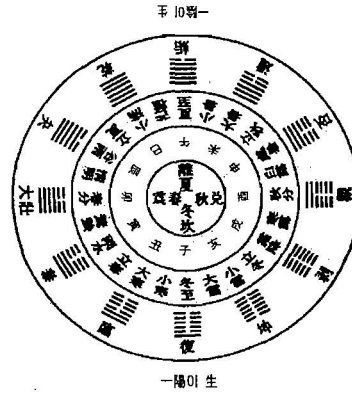


그림 IV-1 十二辟卦圖

2. 《素問脈解》과 十二辟卦說

《素問脈解》의 내용은 三陰三陽을 음양기의 성쇠에 근거하여 명명한 것이다. 그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易學의 十二辟卦說과 일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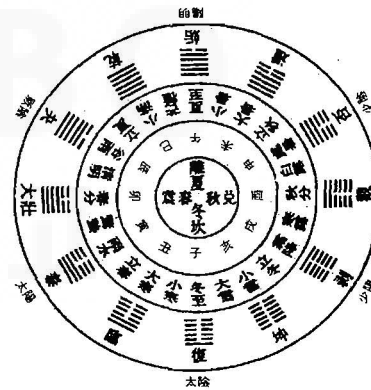


그림 IV-2 十二辟卦와 三陰三陽

(1) 太陽- 正月- 寅 - 泰卦

《素問脈解》에서 "太陽所謂腫腰痛者是 正月太陽寅이니 寅太陽也라, 正月陽氣出在上이나 而陰氣盛하야 陽未得自次也니 故로 腫腰痛也니 이다."라고 하였는데, 十二辟卦說 중 正月은 泰卦로 地天泰卦(䷊)에 해당한다. 이것은 양기가

15) 심경호, 앞의 책, 180쪽

걸으로 드러나 활동하기 시작하는 단계, 즉 자연에서는 겨울의 언 땅을 녹이고 초목의 새싹이 나기 시작하는 때이고, 인체에서는 내부의 양기가 체표로 드러나는 단계에 해당한다. 이처럼 강력한 陰의 응축을 뚫고 나오는 陽이기 때문에 그 힘이 양 가운데서 가장 세다. 그래서 正月을 太陽이라고 한 것이다. 이에 대해 楊上善은 “十一月에 一陽生하고 十二月에 二陽生하고 正月에 三陽生하니 三陽은 生寅之時니 其陽已大라 故曰太陽이니라. 一陽在地下深하니 少初發也오 二陽在地中淺하니 少出也라 故曰正月陽氣出在上也라하니라.”라고 하였으니, 이 또한 十二辟卦說의 내용과 일치한다.

《周易泰卦彖傳》에서 “天地交而萬物通”이라 하였는데, 程子は “天地陰陽之氣 | 相交而和하면 則萬物生成하니라.”라고 하였고, 朱子는 “天地交而二氣通이라 故爲泰니 正月之卦이니라.”라고 하였다. 움추려있던 地中の 양기가 봄이 되어 밖으로 나오면서 비로서 천기와 화합하면서 초목이 자라기 시작함을 말한 것이다. 그러나 三陰이 여전히 버티고 있어서 양기가 완전히 주도권을 장악하지 못하는 단계이다. 또 三것은 인체로 본다면 下體의 상부로 곧 허리에 해당하니, 양기가 여기서 세 陰에 눌러 상승하지 못하고 울체되므로 허리에 질병이 발생할 수 있다. 위의 “正月陽氣, 凍解, 地氣而出也”라고 한 것이나 “萬物盛上而躍”이라 한 것도 泰卦가 의미하는 바와 상통한다.

(2) 少陽 - 9월 - 戌 - 剝卦

《素問脈解》에서 9월을 少陽에 배속하고 “九月陽氣盡而陰氣盛”, “陰氣藏物也, 物藏則不動”, “九月엔 萬物盡衰하야 草木畢落而墮하니 則氣去陽而之陰하고 氣盛而陽之下長이니이다.”라고 하였다. 9월은 卦象으로 보면 山地剝卦(䷖)에 해당하며, 氣의 변화를 살펴보면 양기가 다하고 음이 왕성하게 활동하는 시기이다. 하나의 陽이 위에 있고 다

섯 陰이 밑에 있어서 양기가 곧 끊어지려고 하는 때이므로 여기서 少陽은 짧은 陽이 아니고, 음기에 의해 소멸해가는 陽을 표현한 것이다. 楊上善도 이에 대해 “九月陽少故曰少陽”이라고 하였다.

《周易剝卦彖傳》에서 “剝은 剝이니 柔變剛也라.”라고 하였으니, 이는 姤卦로 부터 一陰이 始生하여 剝卦에 이르러서 음이 극에 달고 양이 곧 끊어져 음이 모두 양으로 곧 바뀌기 직전임을 말한 것이다. 朱子 역시 “五陰在下而方生하고 一陽在上而將盡하야 陰盛長而陽消落하니 九月之卦也라.”라고 하였으니, 이는 《內經》에서 말한 “九月陽氣盡而陰氣盛”과 부합한다.

음기는 성질이 수렴하고 저장하는 성질이 강한데 一陽의 발산력이 五陰의 응축력을 이겨내지 못하므로 이 때에 이르면 氣가 潛藏하게 된다. 9월은 시기적으로 가을의 수렴이 끝나고 겨울의 潛藏의 단계로 넘어가는 때이므로 剝卦의 象과 부합한다. “氣去陽而之陰, 氣盛而陽之下長”이라 한 것도 역시 기가 모두 밖에서 안으로 지상에서 지하로 숨어들어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니, 이로 인해 초목이 모두 다 시드는 것이다.

(3) 陽明 - 五月 - 午 - 姤卦

《素問脈解》에서는 5월을 陽明이라 하고, 이를 “盛陽之陰”, “陽盛而陰氣加之”라고 표현하였다. 기의 변화에 대해서는 “陽者衰於五月하고 而一陰氣上하야 與陽始爭이니이다.”라고 하였다. 5월은 卦象으로는 天風姤卦(䷫)에 해당하니 陽이 한창 왕성하게 활동하는 때이므로 陽明이라 한 것이다. 다섯 陽이 위에서 盛한데 밑에서 一陰이 始生하므로 “陽盛而陰氣加之”라고 한 것이다. 4월은 乾卦에 해당하는데, 이때 양이 극에 달했다가 5월에 일음이 시생하면서 양이 점차 쇠약해지기 시작하므로 “陽者衰於五月하고 而一陰氣上하야 與陽始爭이니이다.”라고 한 것이다. 그래서 이 때가 되면 다리

가 부어 잘 가누지 못하는 병이 자주 발생한다고 하였다¹⁶⁾.

《周易姤卦象傳》에 “姤는 遇也 | 니 柔遇剛也 | 라 ……天地相遇하니 品物이 咸章也 | 오.”라고 하였는데, “柔遇剛也”는 음이 양을 만나는 것이고, “品物咸章”은 만물이 크게 번성하는 것이니, 이 구절은 5월이 되어 일음이 생겨나기 시작하여 비로소 양과 만남으로서 天氣과 地氣가 서로 만나 만물을 길러 이로 인해 만물이 크게 번창함을 말한 것이다.

(4) 太陰 - 11월 - 子 - 復卦

《素問脈解》에서 “太陰은 子也오, 十一月은 萬物이 氣를 皆藏於中이라 故로 曰病脹이니이다.”라고 하였는데, 11월은 12辟卦 중 地雷復卦(䷗)에 해당한다. 復卦는 五陰이 위에 있고 밑에서 일음이 비로소 생하는 단계로 陰氣가 가장 왕성한 때이다. 그래서 太陰이라고 한 것이다. 그런데 이때는 陰氣가 盛하여 안으로 氣를 갈무리하는 성향이 강하여 양기가 밖으로 宣通하지 못하므로 脹에 걸리기 쉽다. 실제로 太陰病의 腹痛이나 腹脹 등 복부 질환은 대개 陰邪로 인한 것이 많다. 이에 대해 楊上善은 “以十一月陰氣大라 故曰太陰이라 하니, 陰氣內聚하고 陽氣外通하니라. 十一月에 陰氣內聚하니 雖有一陽始生이라도 氣微未能外通이라 故로 內病爲脹也니라.”라고 하였다. 脹滿은 十二月에 가서 陰氣가 虛해지고 陽氣가 더해지면서 완화된다고 하였는데¹⁷⁾, 이는 復卦에 一陽이 더해져

地澤臨卦가 되면서 陰氣가 쇠해지고 陽氣가 발전함을 말한 것이다.

《周易復卦象傳》에 “雷在地中이 復이니 先王이 以하야 至日에 閉關하야 商旅 | 不行하며 后不省方하니라.”라고 하였는데, 程子는 이에 대해 “雷在地中은 陽始復之時也라, 陽始生於下而甚微하니 安靜而後能長이라, 先王 | 順天道하야 當至一陽之始生하면 安靜以養之라 故閉關하야 使商旅로 不得行하고 人君은 不省視四方하니라 觀復之象而 順天道也라, 在一人之身에도 亦然하니 當安靜以 養其陽也니라.”라고 하였다. 이는 음기가 성한 때여서 비록 일음이 있지만 하지만 자칫 그나마 상하기 쉬우므로 안정하여 양기가 더 자라기를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니, 이는 內經의 養生思想과 일치하는 것이다.

(5) 少陰 - 7월 - 申 - 否卦

《素問脈解》에서 “少陰者는 腎¹⁸⁾也오, 七月¹⁹⁾엔 萬物陽氣 | 皆傷하니 故로 腰痛也니라.”라고 하였는데, 7월은 12辟卦중 天地否卦(䷋)에 해당한다. 시기적으로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는 때로 陰氣가 발휘되기 시작하는 때이므로 少陰이라 한 것인데, 楊上善은 “七月秋氣始至, 故曰少陰”이라 하였다. 卦象으로 볼 때, 이는 위에 삼양이 있어 위로 올라가고 아래 삼음이 있어 밑으로 내려가 상하가 서로 교류하지 못하는 형상이다. 그래서 이를 否라 한 것이니 否는 막혔다는 뜻이다. 《周易否卦象傳》에서도 “天地不交而萬物不通也”라 하였다. 허리가 아픈 것은 卦象으로 볼 때, 五月 陽明은 天風姤卦(䷫)에 해당하는데, 一陰이 가

다.

18) 腎 : 앞 뒤 문장의 예로 볼 때, “申”으로 고치는 것이 타당하다.

19) 원본에는 “十”으로 되어 있으나, 《太素》에 의거하여 “七”로 고쳤다. 내용상으로도 “七”이 더 타당하다.

16) 所謂脛腫而股不收者는 是五月盛陽之陰也니, 陽者衰於五月하고 而一陰氣上하야 與陽始爭이라 故로 脛腫而股不收也니라. (이른바 다리가 부어서 가누지 못한다는 것은 이 5월의 성한 양기 중에 음기가 시샘하는 것이니, 양기는 5월에 쇠해지고 일음의 기가 올라와서 양기와 더불어 비로소 다투므로 다리고 붓고 허벅지를 가누지 못하는 것입니다.)

17) 所謂得後與氣하면 則快然如衰者는 十二月陰氣下衰한대 而陽氣且出하니 故로 曰得後與氣하면 則快然如衰也니라

장 아래에 있으므로 다리가 아픈 것이고, 7월이 되면 陰氣가 중간까지 올라오게 되므로 인체에서도 역시 陰氣가 허리까지 상승하게 되어 허리가 아파게 되는 것이다.

7월은 가을의 初入으로 肅殺之氣가 발휘되는 시기이니, “秋氣始至, 微霜始下, 而方殺萬物”이라 한 것은 이를 말한 것이다. 가을이 되면 양기는 밖으로 쓸데없는 노폐물을 버리고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7월은 陽氣가 여전히 왕성하여 밖으로 노폐물이나 쓸모없는 수분 등을 다 버리지 못하며, 陰氣는 아직 양기를 완전히 갈무리할 만큼 성숙되지 못하는 때이다. 그래서 “秋氣萬物, 未有畢去, 陰氣少, 陽氣入, 陰陽相薄.”이라 한 것이니, 양기는 안으로 들어갈 준비가 덜되고, 음기는 양기를 받아들인 준비가 덜 된 것을 설명한 것이다.

6) 厥陰 - 3월 - 辰 - 夫卦

《素問脈解》에서 3월을 厥陰이라 하였는데, 12辟卦 중에서는 澤天夫卦(䷛)에 해당한다. 이는 陽氣가 안에서 밖으로 성장함에 따라 陰氣가 곧 끊어지려고 하는 단계이다. 그래서 厥陰이라고 한 것이다. 楊上善도 “陽氣將盡, 故曰厥陰”이라고 하였다. 이 시기는 계절적으로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가는 시기로 정월의 泰卦가 양기가 비로소 지표로 나와 활동하기 시작한 단계를 말한 것이라면 夫卦는 양기가 왕성하게 활동하는 단계이다. 초목으로 따지면 가지가 길게 자라나고 잎이 무성하기 시작하는 때이다. 그래서 “三月一振, 榮華萬物”이라 한 것이니, “一振”은 양기가 크게 떨쳐 일어남을 말한 것이다. 《周易夫卦象傳》에 “夫는 決也 | 니 剛決柔也 | 니 健而說하고 決而和하니라.”라고 하였는데, “決”은 다섯 陽이 一陰을 제거하는 것을 말한다. 마지막까지 남아 양기의 활동을 방해하던 一陰이 제거됨으로써 양기가 왕성하게 활동하여 만물이 융성하게 되므로 “健而說, 決而和(굳세며

기뻐하고 결단하여 화합한다)”라 한 것이다. 그러나 위에 一陰이 남아 있어 여전히 양을 견제하므로 순간의 방심으로 양기가 음기에 꺾이게 되면 회복하기가 어렵다. “一俛而不仰”은 이를 말한 것이다. 《周易, 夫卦, 象傳》에서 “孚號有厲(미덥게 호소하되 위태롭게 여김이 있다)”라고 하고, 程子가 해석하기를 “雖以此之甚盛으로 決彼之甚衰이라도 若易而無備면 則有不虞之悔니라.”라고 하였으니 그 내용이 서로 통하는 면이 있다. “陰亦盛而脈脹不通”, “陰陽相薄而熱”도 모두 마지막 남은 一陰이 양기가 충실하지 못한 틈을 타서 五陽에 대항하는 것이다.

《素問脈解》의 내용은 이처럼 易學的의 12辟卦說과 부합하며, 철저히 陰陽의 升降과 進退消長이론을 따르고 있다.

V. 八卦方位說의 응용

1. 八卦方位說

八卦方位說은 《周易設卦傳》의 後天八卦說에서 연원한 것인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萬物이 出乎震하니 震은 東方也 | 라, 齊乎巽하니 巽은 東南也 | 니 齊也者는 言萬物之潔齊也 | 라, 離也者는 明也 | 니 萬物이 皆相見할새니 南方之卦也 | 니 聖人이 南面而聽天下하야 嚮明而治하니 蓋取諸此也 | 라. 坤也者는 地也 | 니 萬物이 皆致養焉할새 故로 曰致役乎坤이라, 兌는 正秋也 | 니 萬物之所說也일새 故로 曰說言乎兌라, 戰乎乾은 乾은 西北之卦也 | 니 言陰陽相薄也 | 라, 坎者은 水也 | 니 正北方之卦也 | 니 勞卦也 | 니 萬物之所歸也일새 故로 曰勞乎坎이라, 艮은 東北之卦也 | 니 萬物之所成終而所成始也일새 故로 曰成言乎艮이라.

만물이 震에서 나오니 진은 동방이다.巽에서

가지런하니 손은 동남이니 '齊'라는 것은 만물이 깨닫고 가지런함을 말한 것이다. '離'라는 것은 밝음이니 만물이 서로 보기 때문이니 남방의 괘이니 성인도 남쪽을 향해 천하의 의견을 들어서 밝은 데를 향하여 다스리니 대개 여기에서 취한 것이다. '坤'이라는 것은 땅이니 만물이 모두 기쁨을 이루기 때문에 故로 '坤方에서 役事를 이룬다'라고 하였다. '兌'는 곧 가을이니 만물이 기뻐하는 바이므로 '兌方에서 기뻐한다'고 하였다. '乾'에서 싸운다함은 건은 서북의 괘이니 음과 양이 서로 부딪침을 말한 것이다. '坎'은 물이니 정북방의 괘이니 수고를 위로하는 괘이니 만물이 歸依하는 바이므로 '坎方에서 위로한다'라고 하였다. '艮'은 동북의 괘이니 만물이 마침을 이루는 바이며 시작함을 이루는 바이므로 '艮方에서 이룬다'고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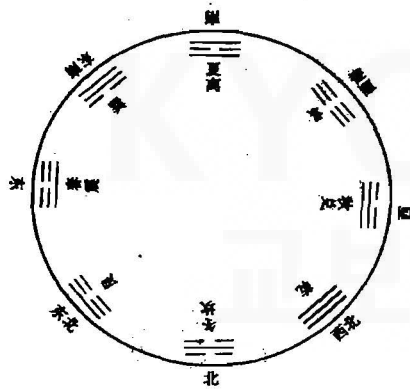


그림 V-1 八卦方位圖(設卦傳)

坤卦와 兌卦를 제외한 震, 巽, 離, 乾, 坎, 艮 여섯 괘의 방위를 각각 東, 東南, 南, 西北, 北에 배속하였다. 이러한 순서로 볼 때, 坤卦와 兌卦는 西南과 西에 배속되는 것이 분명하다. 이를 그림으로 그린 것이 바로 後天八卦圖이다.

이후 《易緯乾鑿度》에서는 後天八卦를 月令에 배속하였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²⁰⁾.

易始於太極, 太極分而爲二, 故生天地, 天地有春夏秋冬之季, 故生四時. 四時各有陰陽剛柔之分, 故生八卦. 八卦成列, 天地之道立, 雷風水火山澤之象定矣. 其布散用事也, 震生物於東方, 位在二月, 巽散於東南, 位在四月, 離長之於南方, 位在五月, 坤養之於西南方, 位在六月, 兌收之於南方, 位在八月, 乾制之於西北方, 位在十月, 坎藏之於北方, 位在十一月, 艮終始之於東北方, 位在十二月, 八卦之氣終, 則四正四維之分明, 生長收藏之道備, 陰陽之體定, 神明之德通, 而萬物各以其類成矣, 皆易之所包也. 至矣哉, 易之德也

易은 太極에서 비롯되는데, 太極은 나뉘어 들어 되니 故로 天地를 낳는다. 天地에는 봄, 가을, 겨울, 여름 네 계절이 있으니 故로 四時를 낳는다. 四時에는 각각 陰陽剛柔의 구분이 있으니 故로 八卦를 낳는다. 八卦는 완성되어 늘어섬에 천지의 道가 세워지고, 雷風水火山澤의 象이 정해진다. 그것이 펼쳐 작용함에, 震은 동방에서 만물을 생하니 2월에 위치하고, 巽은 동남에서 펼쳐 흩뜨리니 4월에 위치하고, 離는 남방에서 만물을 자라게 하니 5월에 위치하고, 坤은 서남방에서 만물을 기르니 6월에 위치하고, 兌는 서방에서 만물을 수렴하니 8월에 위치하고, 乾은 서북방에서 만물을 통제하니 10월에 위치하고, 坎은 북방에서 만물을 갈무리하니 11월에 위치하고, 艮은 동북방에서 마치기 시작하게 하니 12월에 위치한다. 八卦의 氣가 마침에 四正과 四維의 구분이 명확해지고, 生長收長의 道가 갖추어지며, 陰陽의 體가 갖추어지고, 神明의 德이 通하여, 만물이 각각 그 類에 따라 이루어지니, 모두 易이 포괄하는 것이다. 지극하다. 易의 德이여!

이를 요약하면, 震은 동방에서 만물을 생하므로

20) 의역회통정의, 이준천·소한명 주편, 인민위생출판사, 1991, 72~73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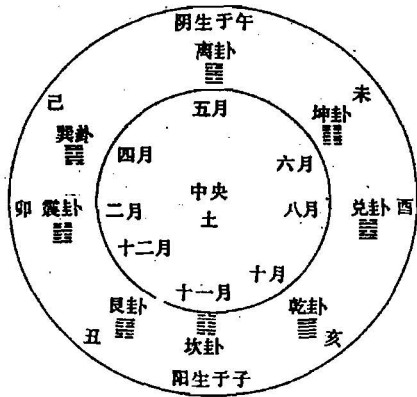


그림 V-2 팔괘월령배속도(건축도)

로 2월에 해당하고, 巽은 동남에서 기를 布散하므로 4월에 해당하고, 離는 남방에서 만물을 자라게 하므로 5월에 속하고, 坤은 서남방에서 만물을 양육하므로 6월에 속하고, 兌는 서방에서 만물을 수렴하므로 8월에 해당하며, 乾은 서북방에서 만물을 통제하므로 10월에 해당하고, 坎은 북방에서 만물을 저장하므로 11월에 속하고 艮은 동북방에서 마치고 시작하므로 12월에 속한다는 것이다. 즉 八卦에 8달을 배속한 것이다. 《易緯乾鑿度》는 이에 그치지 않고, 나머지 네개의 달도 八卦에 배속하였는데, 正月을 艮에 3월을 巽에, 7월을 坤에 9월을 乾에 배속하였고²¹⁾, 《易緯通卦驗》에서는 여기에 일년 중의 節氣를 배속하였다.

이를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 坎 - 北方 - 11월(子) - 冬至
- 艮 - 東北 - 12월(丑), 正月(寅) - 立春
- 震 - 東方 - 2월(卯) - 春分
- 巽 - 東南 - 3월(辰), 4월(巳) - 立夏
- 離 - 南方 - 5월(午) - 夏至
- 坤 - 西南 - 6월(未), 7월(申) - 立秋

21) 艮漸正月, 巽漸三月, 坤漸七月, 乾漸九月《역위·건축도》
 》 의역회통정의 73쪽 재인용

兌 - 西方 - 8월(酉) - 秋分

乾 - 西北 - 9월(戌), 10월(亥) - 立冬

결국 四正卦는 각각 1개월을 담당하는데 절기로는 二至(夏至와 冬至), 二分(春分과 秋分)이 이에 해당하며, 四維卦는 자기가 담당하는 달 이외에 한 달을 더해서 각각 두개의 달을 맡는데 절기로는 四立(立春, 立夏, 立秋, 立冬)이다.

이를 그림으로 그려보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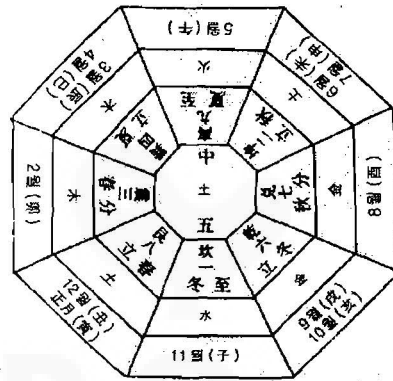


그림 V-3 팔괘-월령-오행배속도

일년 동안의 陰陽의 升降消長을 나타낸 것으로, 좌측의 坎卦에서 離卦까지는 일년 중 前半年의 陽氣가 나아가고 陰氣가 쇠퇴하는 과정이며, 우측의 離卦에서 坎卦까지는 일년 중 後半年의 陽氣가 쇠퇴하고 陰氣가 발전하는 과정이다. 陽氣를 기준으로 말한다면 좌측으로 陽氣가 상승하고 우측으로 陽氣가 하강하는 과정인 것이다.

이를 五行에 배속해 보면, 震은 東方에 위치하여 木이고, 離는 남방에 위치하여 火이며, 兌는 西方에 위치하여 金이고, 坎은 북방에 위치하여 水이다. 나머지 사유괘도 오행에 배속해 보면²²⁾, 乾

22) 《周易說卦傳》 11장에서 乾을 金이라하고, 坤을 地라하고, 巽을 木이라 하고, 艮을 山 또는 小石이라 하였다. 이로 볼 때, 乾은 金에 속하고, 巽은 木에 속하고, 坤과 艮은 土에 속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은 金에 속하고, 巽은 木에 속하고, 坤과 艮은 土에 속한다. 따라서 좌측은 木火의 기운이 왕성하여 春夏에 만물이 생성, 발전하는 단계이며, 우측은 金水의 기운이 왕성하여 秋冬에 만물이 수렴, 쇠퇴하는 단계이다.

2. 九鍼論과 八卦方位說

《靈樞九鍼論》에서는 癰疽를 치료할 때, 침을 놓지 말아야 하는 시기를 설명하면서 節氣와 신체 부위 및 日辰을 배속하였는데, 아래와 같다.

岐伯曰請言身形之應九野也, 左足應立春, 其日戊寅日丑. 左脇應春分, 其日乙卯. 左手應立夏, 其日戊辰日巳. 膺喉首頭應夏至, 其日丙午. 右手應立秋, 其日戊申日未. 右脇應秋分, 其日辛酉. 右足應立冬, 其日戊戌日亥. 腰尻下竅應冬至, 其日壬子. 六府膈下三藏應中州, 其大禁²³⁾, 大禁太一所在之日, 及諸戊己

岐伯이 말하기를, 사람의 형체가 九野(九宮)에 應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왼발은 立春에 응하는데 그 날은 戊寅日과 己丑日이며, 왼쪽 옆구리는 春분에 응하는데 그 날은 乙卯日이며, 왼손은 입하에 응하는데 그 날은 戊辰日과 己巳日이며, 가슴, 목구멍, 머리는 夏至에 응하는데 그 날은 丙午日이며, 오른손은 立秋에 응하는데 그 날은 戊申日과 己未日이며, 오른쪽 옆구리는 秋분에 응하는데 그 날은 辛酉日이며, 오른발은 立冬에 응하는데 그 날은 戊戌日과 己亥日이며, 허리, 콩무늬, 前陰, 後陰은 冬至에 응하는데 그 날은 壬子日입니다. 육부와 횡경막 아래 세 藏(肝, 脾, 腎)은 中州(中宮)에 응하는데 그 鍼刺를 크게 禁하는 날은 太一이 있는 바의 날과 각 戊日, 己日입니다.

위 내용을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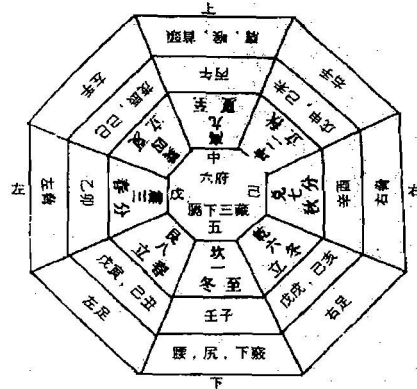


그림 V-4 팔괘-신체부위 배속도

이 편の内容은 九宮說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데, 九宮說은 八卦方位說의 한 형식이다. 즉 앞의 八卦方位圖에 변화의 주체인 중앙이 더해진 것이다. 《九鍼論》의 내용은 여기에 天干을 배속한 것이다. 天干의 五行 배속은 東方에 甲乙이 속하고, 南方에 丙丁이 속하며, 西方에 庚辛이 속하고, 北方에 壬癸가 속하며, 中央에 戊己가 위치하여 四方에 관여한다. 이에 대해, 張介賓은 “乾坤艮巽은 四隅之宮也 오 震兌坎離은 四正之宮也니라. 土王於四季하니 故四隅之宮은 皆應戊己하고 而四正之宮은 各有所王하니라²⁴⁾.”이라 하였다. 즉 四間方은 四季에 해당하여 모두 土에 속하는 것이므로 戊己가 이에 응한다는 것이다. 이것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 坎 - 北方 - 11월(子) - 冬至 - 水 - 壬, 癸
- 艮 - 東北 - 12월(丑), 正月(寅) - 立春 - 戊, 己
- 震 - 東方 - 2월(卯) - 春分 - 木 - 甲, 乙
- 巽 - 東南 - 3월(辰), 4월(巳) - 立夏 - 戊, 己
- 離 - 南方 - 5월(午) - 夏至 - 火 - 丙, 丁
- 坤 - 西南 - 6월(未), 7월(申) - 立秋 - 戊, 己
- 兌 - 西方 - 8월(酉) - 秋分 - 金 - 庚, 辛

23) 其大禁의 大禁은 重複되므로 《甲乙經》에 의거하여 제거함 이 마땅하다.

24) 張介賓, 類經 上, 대성문화사, 1986, 218쪽

乾 - 西北 - 9월(戌), 10월(亥) - 立冬 - 戊, 己
中央 - 戊, 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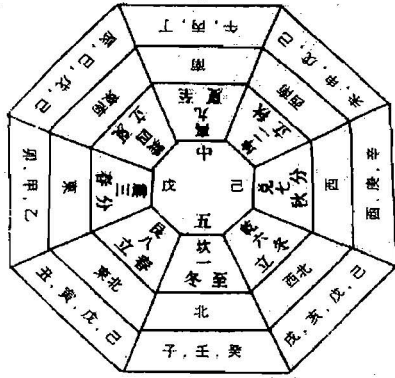


그림 V-5 팔괘-간지 배속도

각 方位의 날짜 배속은 각각의 天干과 地支를 배합하여 그 중 60甲子에 해당하는 것을 그 상응하는 날짜로 정한 것이다. 예를 들어, 北方을 보면, 地支 중에는 子가 이에 속하고 天干으로 壬과 癸가 이에 해당하는데, 이들을 배합해 보면 壬子, 癸子가 되는데 60甲子에 癸子는 존재하지 않으므로 당연히 壬子만 남는다. 東北方은 地支 중에는 寅과 卯이 이에 속하고, 天干은 戊와 己가 이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들을 서로 배합해보면 戊寅, 己卯이 나온다.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左足은 八卦方位說에 따르면 東北의 艮方에 해당하며, 節氣上으로 立春에 해당한다. 양기가 비로소 생겨나는 단계로 地中에 있는 양기가 상승하기 시작하는 때이다. 인체로 보면 하체는 地에 해당하니 立春에 기가 左足에 있음은 곧 자연에서 양기가 땅속에서 상승하기 시작함을 말한 것이다. 나머지도 모두 이와 같은 방법으로 설명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九鍼論》의 내용은 자연에서 일년 동안 이루어지는 氣의 升降運動으로 그대로 인체에 투영한 것이다. 春夏에 天地가 冬至에서 夏至

까지 陽氣가 좌측으로 상승하면서 만물을 생성, 발전시킴에 따라 인체 내의 氣도 이에 순응하여 인체의 좌측을 따라 기가 상승하며, 秋冬에 天地가 夏至에서 冬至까지 우측으로 하강하면서 陰氣에 의해 陽氣가 수축되면서 만물이 쇠퇴, 소멸하는 것처럼 인체 내의 기의 흐름도 이에 순응하여 陽氣가 우측으로 하강한다고 본 것이다.

VI. 結論

이상의 연구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렸다.

1. 《內經》과 《周易》은 모두 陰陽이 만물을 생성하고 변화시키는 근본이며, 天地自然의 모든 변화는 陰陽의 升降과 進退消長에 의해 발생하며, 이러한 자연의 변화는 인체 내에서도 똑같이 일어난다고 인식하였다.

2. 《內經》에서 시간에 따라 신체부위를 구분하여 배속한 것에 대해 易學的理論을 이용하여 분석해 본 결과, 관련 내용 모두가 陰陽의 升降과 進退消長을 그 이론적 바탕으로 하고 있는데, 특히 《素問脈解》의 내용은 十二辟卦說과 《靈樞九鍼論》은 八卦方位說과 밀접한 연관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參考文獻

1.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東洋醫學研究院出版部, 1985
2. 洪元植, 《精校黃帝內經靈樞》, 東洋醫學研究院出版部, 1985
3. 朴贊國, 懸吐國譯黃帝內經素問注釋, 경희대학교 출판국, 1998
4. 《原本集注周易》, 明文堂, 1986
5. 張基槿李錫浩 譯, 《老子莊子》, 三省出版社, 1987.

6. 朱伯崑, 易學哲學史, 北京大學出版社, 1989.
7. 周易哲學史, 呂明春·강학위·양위현 지음, 심경호 옮김, 예문서원, 1995.
8. 醫易會通正義, 이준천·소한명 주편, 인민위생출판사, 1991.
9. 張介賓, 類經, 대성문화사, 1986.

